

LG이노텍, LG마이크론 흡수 새출발

2015년 세계 5위 전자부품 메이저 도약 ... 삼성전기와 양강 체제로

LG이노텍이 LG마이크론을 흡수하고 7월1일부터 새출발을 시작한다.

LG이노텍은 6월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열고 2015년까지 세계 5위의 종합전자 부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장기경영 목표를 공개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디지털 튜너, 모터, 중소형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전개해온 LG마이크론을 합병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매출이 3조원(2008년 연결기준)에 육박하는 종합부품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고, 국내 전자부품 시장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허영호 LG이노텍 사장은 “통합법인의 출범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위상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은 지속적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LED(Light Emitting Diode)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1>